

장 건강개선엔 '김치 유래 유산균'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인체적용시험서 면역세포 1.5배 활성화돼

김치 유래 유산균인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가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충북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함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김치 유래 유산균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Weissella cibaria JW15)'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15일 밝혔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2017년 9.7%에서 2019년 15.6% 점유율을 보이며 급성장해 홍삼, 개별인정형 원료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의 수입

의존율이 높아 우리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는 2016년 농촌진흥청 연구 끝에 신규 식품원료로 등록된 미생물 소재다.

김치 발효 초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김치 유산균 중 하나로, 김치 특유의 상쾌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 주는 유익 균이기도 하다.

항암·면역·항염증·항산화 활성 등의 효과가 있으며,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통해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가 면역기능에 중요한 비장세포 수와 비장세포 내 면역과 관련된 사이토카인(TNF- α , IFN- γ)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성인 8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결과,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섭취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약 1.5배 활성화돼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충북대학교(이완규 교수팀)와 함께 개발한 '신규한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균주 및 이의 용도' 특허(제10-1536672호) 기술을 산업화

하기 위해 16일 건강기능식품 개발, 판매 전문기업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인정형 기능성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이전 협약 체결 기업 천청은 대 표는 "최근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면역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면역기능 개선 효능을 갖고 있는 유산균 기술을 이전받게 돼 기쁘다"며 "우리 농산물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고, 고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100억원 지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본격화 기술발굴·연계, 기업창업 등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전북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북특구 육성사업은 약 100억원 규모로,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종합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망한 공공기술을 찾아서 수요기업에 연계하는 '기술발굴·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특구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과 협력해 사업화 유망기술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모델(BM) 제작 등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 및 연구수용기업 설립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특구 지정 이후 기술이전은 336건, 연구수용기업 142개 사가 설립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이 제품개발, 양산화를 통해 매출·고용과 같은 실질적 사업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20여개 과제를 5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구 고유의 혁신기업 모델인 연구수용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 → 창업 →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기업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연구수용기업은 준비 단계부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자립·자생이 가능하도록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기업진단, 멘토링, 시장진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아이템 발굴, 검증 등을 지원하는 이노폴리스퀘어 사업을 통해 특구 내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창업을 가속화하고,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VC) 등과 협력해 특구기업의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특구 내 전통 제조기업의 신사업 전환 유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의 후속성장을 위해 기술컨설팅, 사업전략 분석, 판로개척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도와 전북특구본부는 공공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혁신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북도는 전북특구 육성을 위해 국비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액에 따라 사업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병호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특구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으로 전북특구가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지역 신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동경 전북특구본부장은 "특구 내외의 혁신자원을 적극 연계·활용하고 사업화기업의 성장지원을 강화해 사업과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며 "전북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기술 기업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구 육성사업 신청·접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및 특구재단(www.innopol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구 담당자(063-905-9753~7)에게 문의하면 된다. /유효상 기자

예수병원-전주시

아동학대 대응 협약

예수병원이 전주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일 전북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과 함께 전주시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본보 3월 10일자 4면〉

이로써 협약기관들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적극적 치료, 의료적 자문, 신고의무자 교육, 홍보활동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김호권 예수병원 대외협력부장은 "예수병원은 학대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의료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숙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장은 "예수병원은 이전부터 학대아동의 지원팀이 구성돼 있고, 피해자가 아닌 아동의 권리 강화차원으로 2015년에 아동보호위원회로 개칭돼 의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이 전주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일 전북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과 함께 전주시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증명 발급서비스도 모바일 앱으로

전북대병원, 이송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간편 발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최근 병원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모바일 앱 제증명 발급서비스는 환자자들이 많이 발급받는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앱으로 편리하게 발급받도록 한 새로운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시·공간 제약 없이 손쉽게 병원증명서를 신청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은 현재 의사진단서, 진료소견서, 출생증명서, 외래·입퇴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도 앱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어서 향후 고객 편의는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국내 전체 보훈사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앱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앱을 이용하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료비를 해당 보훈사에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한편, 2019년 7월 오픈한 전북대병원 모바일 앱 회원가입자 수는 현재까지

29,100명, 올해 일평균 앱 이용자 수는 약 570명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 간 모바일 앱 접속건수는 58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접속한 33만 건과 비교해 약 77%나 급증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모바일 앱 이용 고객들이 병원 진료과정에서 필수적인 진료예약, 진료비 결제, 진료일정 확인, 실손보험 청구, 주차증 등록 등을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면서 병원의용에 큰 만족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필요로 하는 편리한 앱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노블사회공헌봉사단

완주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3일 전북농협 노블사회공헌봉사단과 함께 완주군 비봉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을 방문해 사랑나눔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전북농협 직원과 노블봉사단원들은 노후된 주택의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기쁜 마음과 웃는 얼굴로 참여해주신 봉사단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서·치유곤충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전북농기원, 사슴풍뎡이 여치 현장 시범사업 추진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정서·치유곤충 사육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고창 바이오인섹트팜과 전주 곤충캠퍼스에서 현장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인섹트팜(고창)에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애완화육 및 정서치유 목적으로 개발한 사슴풍뎡이 대량 사육기술을 도입해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사육시스템에 활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곤충뿐만 아니라 사육관련 용품 등을 상품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사슴풍뎡이는 꽃무지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사슴뿔 모양의 뿔을 가진 꽃무지로 애완용 또는 정서·치유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대량사육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슴풍뎡이 수컷



긴날개여치 암컷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 소재를 개발하고, 곤충관련 각종 전시행사를 마련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내에 부가 가치 향상을 도모하여 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선발과 상품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농업기술원 임주라 연구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곤충농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체계적인 사육기술 보급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 소비자, 유통종사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소득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도, 과수 생산·유통 지원 대상자 24일까지 모집

전북도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사업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이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은 집하선별·포장·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시선설치시설, 가공시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생산자단체 대상으로 개소당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주산지 중 30ha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유효상 기자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은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5ha 기준 7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이미 설치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이 노후화 된 경우에 노후시설의 교체·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은 과실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홍보비를 사업규모에 따라 9~30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2021년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서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시·군청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유효상 기자

'소상공 성공모델 찾습니다'

전북중기청, '백년가게·소공인 성장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부의 '2021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공고'에 따라 신규업체를 모집하고, 기존 선정업체 중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단일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이며,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기술, 차별성과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

해 올해 전국에서 700개사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선정 희망 업체는 전북지역(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와 이메일(100year@semas.or.kr)로 신청이 가능하며, 백년소공인 선정 희망 업체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흥광단(www.semas.or.kr) 누리집에서 자세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